

발표: 유진아, 한국학중앙연구원

우렁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구술성: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개정·증보사업'의 자료를 중심으로

The Orality Of the tale of “Snail Bride (Ureonggaksi)”: focusing on materials from *The Comprehensive Collection of Korean Folklore(1979-1985)* and its *Revision and Enlargement project(2008-2018)*

<목차>

1. 서론
2.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개정·증보사업'의 우렁각시 설화 유형과 단순 결합형의 증가
3. 여성 제보자의 구술 양상: 가족 관계에 나타나는 인물 형상과 갈등을 중심으로
4. 결론

1. 서론

이 연구는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개정·증보사업'의 우렁각시 설화 자료에 나타나는 구술성(orality)을 관찰하고자 한다. 우렁각시 설화는 열악해지는 전승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개정·증보사업'에서 전국적으로 채록되는 광포설화(廣布說話)이다. 그만큼 한민족의 기억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설화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1979년에 시작된 '한국구비문학대계' 사업은 최초로 전국적 규모의 한국 구비문학 조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1979-1985년 1차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채록된 36편의 우렁각시 설화 자료와 그 연속 사업인 2008-2018년 2차 '개정·증보사업'에서 채록된 37편의 우렁각시 설화를 그 대상으로 한다. 두 사업의 자료는 녹음 장비를 활용하여 구술자의 표현 그대로를 기록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즉 구비문학의 구술성을 그대로 살렸다고 볼 수 있다.

구비설화를 구술하는 것은 구술자가 과거에 들은 이야기를 현재의 인식 체계에서 구술하는 것이 된다. 구술은 기억에 의하며 기억은 구술자의 인식 체계 즉 의미와 가치에 따라 변한다. 월터 옹은 구술성은 현재의 가치관에 따르는 '항상성'¹과 현실의 경험에 따르는 '상황의존성'²을 전제로 하며, 기억과 인식은 사회적 관계에 맞추어 변화된다고 보았다.

¹ 월터 J. 옹 지음,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4, 77-81쪽.

² 월터 J. 옹 지음,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4, 81-96쪽.

따라서 구비설화는 구술자가 살아온 삶과 사회상을 반영한다.

'대계'와 '개정·증보 사업'에 채록된 우렁각시 설화는 60-80대 여성 제보자에 의해 구술된 경우가 대부분이다.³ 남성에 의해 구술된 자료는 80년대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자료 3편에 불과하다.⁴ '대계'와 '개정·증보 사업'의 여성 제보자는 대부분 농어촌 사회에서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서 가정을 중심으로 그 생애를 영위해 왔다.⁵

설화와 같은 옛이야기는 보통 어린 시절 즉 여성인 경우 20대 이전, 혼인 전에 듣는다. 어린 시절 들은 우렁각시 설화를 여성 제보자들이 60-80대에 이르러, 재구성과 재표현의 과정을 거쳐 다시 말하기 즉 '리텔링(retelling)' 한다고 볼 수 있다. 가부장적 농경문화 속에서 한 가정의 아내로, 며느리로, 어머니로 살아왔던 60-80대 여성의 현실인식과 경험에 따라 구술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우렁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인 총각, 우렁각시, 흠어머니는 가족 관계를 형성한다. 우렁각시 설화의 인물 형상과 갈등에 대한 구술 양상은 여성 제보자의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아래에서는 우렁각시 설화에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등장인물의 형상과 욕망이 어떻게 구술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개정·증보사업'의 우렁각시 설화유형과 단순 결합형의 증가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개정·증보사업'에서 현재까지 채록된 우렁각시 설화는 총 71편이다. 80년대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34편, 2010년대 '개정·증보사업'에서 37편이다.⁶

우렁각시 설화의 유형은 다양한 편이다. 선행 연구 중 진은진과 이지영의 연구는 우렁각시 설화의 다양한 전승 양상을 망라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지영은 '우렁각시 설화'를 '결혼시련담'으로 보았으며, 단순결합형, 새털옷 축출형, 새원망형, 아내내기 시합형으로 분

3 부록 표 <우렁각시 설화 목록>(14-16쪽) 참고. 우렁각시 설화 제보자의 나이대는 40대 1명, 50대 2명, 60-80대 67명, 90대 1명이다.

4 부록 표 <우렁각시 설화 목록>(14-16쪽) 참고. 우렁각시 설화가 여성 제보자에 의해 주로 구술되는 양상에는 조사자, 제보자, 연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5 '대계'와 '개정·증보 사업'의 자료는 대부분 면, 읍 단위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6 부록 표 <우렁각시 설화 목록>(14-16쪽) 참고

류하였다.⁷ 진은진은 기본형과 복합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복합형을 다시 원혼형, 새털옷형, 아내내기 시합형으로 세분화하였다.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우렁각시 설화의 유형을 단순 결합형, 단순 이별형, 복합형으로 원혼형(원망형 포함), 새털옷 신랑형, 아내내기 시합형으로 분류하고 서사단락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단순형은 복합형의 전반부와 유사하므로, 복합형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① 복합형(전반부)

가. 총각이 (눈, 발)일을 하다가 우렁이를 발견한다. (총각이 강에서 잉어(붕어, 고기)를 낚는다.)

나. 총각은 우렁이를 농(물 향아리)에 둔다.

다. 총각은 밥상을 차리는 우렁각시를 발견한다.

라. 총각은 같이 살자고 하나 우렁각시는 정한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마. 총각은 기다리지 않고 우렁각시와 산다.

복합형(전반부)의 서사단락에서 '라' 단락은 '금기'의 제시에 해당한다. 신성한 우렁각시와 세속적인 총각의 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 금기가 제시되는 것이다.

단순 이별형의 경우, 금기를 지키지 않은 총각은 결국 우렁각시와 이별한다. 단순 결합형의 경우, 총각은 금기를 지켜서 우렁각시와 행복하게 살게 된다.

다음으로 복합형의 후반부는 원혼형, 아내내기 시합형, 새털옷 신랑형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② 원혼형(원망형)

바. 총각의 어머니는 우렁각시를 시켜 일하는 총각에게 점심을 가져가라고 한다.

사. 원님(임금)이 우렁각시를 발견하고 데려간다.

아. 원통한 총각은 죽는다./ 원통한 총각은 죽어 새가 되고 우렁각시를 찾아간다.

⁷ 이지영, 「한국결혼시련담 연구: <나무꾼과 선녀>와 <우렁색시>형 민담을 중심으로」, 1987,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⁸ 진은진, 『우렁색시 설화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5, 8-13쪽.

③ 아내내기 시합형

바. 우령각시의 미모가 소문이 나 임금의 귀에 들어간다. (우령각시의 '화상(化像)'이 바람에 날려 그 미모가 임금에게 알려진다.)

사. 임금은 우령각시를 빼앗기 위해 총각에게 내기를 제안한다.

아. 총각은 용왕(우령각시)의 도움을 받아, 임금을 이기고 우령각시와 행복하게 살게 된다.

④ 새털옷 신랑형

바. 우령각시의 미모가 소문이 나 임금의 귀에 들어간다. (우령각시의 '화상(化像)'이 바람에 날려 그 미모가 임금에게 알려진다.)

사. 임금은 우령각시를 데려가고, 우령각시는 총각에게 새털옷을 입고 자신을 찾아오라고 한다.

아. 임금이 우령각시를 위해 잔치를 베풀자 총각은 새털옷을 입고 우령각시를 찾아간다.

자. 임금이 총각의 새털옷으로 바꿔 입자, 총각은 임금의 옷을 입고 임금을 죽인다. 임금이 된 총각과 우령각시는 행복하게 산다.

복합형의 서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령각시 서사는 신성혼을 위한 '금기 화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후반부의 서사는 금기 파기로 인한 '결과'(이별) 또는 금기 파기로 인한 '결과 회피'(고난 극복 또는 이별 후 재결합)로 구성된다.

아래의 표는 '대계'와 '개정·증보사업'에서 조사된 71편의 자료를 위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유형		대계(34편)		개정증보사업 (37편)	
단순형 (39)	결합형(25)	(8)	<허물벗고 행복하게 산 우령색시>(전북전주시 동완산동, 1980), <우령색시>(충남 부여군 홍산면, 1982), <우령색시>(전북 옥구군 성산면, 1982), <우령에서 나온 처녀(1)>(전북 옥구군 서수면, 1982), <소라 우령과 결혼한 총각>(전북 정읍군 고부면, 1984), <우령각시>(충남 공주군 유구면, 1984), <우령이 속에서 나온 처녀>(경북 성주군 벽진면, 1979), <우령이 속에서 나온 미인>(전남 화순군 이서면, 1984)	(17)	<우령신랑>(전남 구례군 용방면, 2009), <우령이 각시>(경남 함양군 서하면, 2009), <우령이 각시>(경북 청송군 진보면, 2009), <총각의 노래를 듣고 나오는 우령각시>(전북 무주군 부남면, 2009), <우령각시>(강원 원주시 문막읍, 2011), <우령각시>(경남 산청군 생초면, 2012), <우령각시를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된 총각>(전북 김제시 백구면, 2012), <우령각시와 살게 된 농부>(전북 김제시 금구면, 2012), <우령각시와 총각>(충남 홍성군 장곡면, 2012), <우령각시>(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2014), <우령각시>(경기 하남시 춘궁동, 2015), <뱀 서방>(카자흐스탄, 2016), <우령각시>(경기 평택시 오성면, 2016), <고동 각시와 결혼한 효자>(경남 함안군 대산면, 2013), <고동 각시와 결혼해서 산 총각>(경남 함안군 가야읍, 2013), <고동처녀와 결혼한 총각>(경남 창녕군 길곡면, 2015), <팔 발 일구는 총각과 혼인해서 산 고동 각시>(경남 함안군 대

				산면, 2013)
	이별형(14)	(3)	<우렁 색시(1)>(1980, 전북 전주시 서서학동), <우렁이 각시(1)>(1984, 경남 울주군 상북면), <우렁이 각시(2)>(1984, 경남 울주군 상북면)	(11) <우렁각시>(경기 김포시 하성면, 2009), <우렁각시>(경남 함양군 안의면, 2009), <우렁각시>(전북 진안군 마령면, 2010), <우렁각시>(경남 함양군 칠원면, 2013), <우렁각시와 총각>(경남 창원시 의창구, 2014), <우렁각시>(경남 창원군 이방면, 2015), <우렁각시>(경남 창원군 창녕읍, 2015), <우렁각시>(대전시 중구 목달동, 2016), <고동 각시 이야기>(경남 함양군 대산면, 2013), <고동각시>(경남 산청군 차황면, 2012)
복합형 (24)	원혼형(9)	(7)	<우렁 색시(2)>(전북 전주시 서서학동, 1980), <우렁색시(1)>(전북 전주시 풍남동, 1980), <참빗이 된 우렁이 처녀>(전북 완주군 고산면, 1980), <우렁각시>(충남 공주군 의당면, 1983), <우렁 색시>(전북 정읍군 북면, 1985), <우렁색시>(전북 정읍군 칠보면, 1985), <병속에서 나온 색시>(전북 정읍군 정우면, 1985)	(2) <우렁각시와 죽어서 새가 된 남자>(충남 예산군 대술면, 2013), <우렁각시와 죽어서 새가 된 남편>(충남 예산군 광시면, 2013)
	아내내기 시합형(5)	(4)	<우렁이 각시>(경남 밀양군 무안면, 1981), <남편을 가르친 우렁이 색씨>(전북 부안군 줄포면, 1981), <우렁이 마누라 얻은 총각>(충북 영동군 용사면, 1982), <고기가 사람된 이야기>(제주 남제주군 안덕면, 1981)	(1) <우렁각시와 살게 된 총각>(경남 함양군 지곡면, 2009)
	새털옷 신랑형(10)	(7)	<달팽이(우렁이)각시>(충남 대덕군 기성면, 1980), <우렁색시(2)>(전북 전주시 풍남동, 1980), <우렁색시(3)>(전북 전주시 풍남동, 1980), <우렁에서 나온 처녀(2)>(전북 옥구군 서수면, 1982), <우렁이 색시 덕에 임금된 사람>(경북 선산군 고아면, 1984), <고동처녀 덕에 임금된 조서방>(경북 성주군 대가면, 1979), <돌이 변한 여인과 살다 임금된 총각>(경북 예천군 월포동, 1984)	(3) <우렁각시>(충남 금산군 부리면, 2009), <지하국대적에게 잡혀간 우렁각시를 구한 남편(1)>(충남 서산시 운산면, 2015), <지하국대적에게 잡혀간 우렁각시를 구한 남편(2)>(충남 서산시 운산면, 2015)
기타		<우렁 속에서 나온 미인>(전북 남원군 송동면, 1979), <총각과 달팽이>(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1983), <땅강아지 처녀와 총각>(경북 군위군 소보면, 1982), <고	<나무꾼 몰래 밥상을 차린 우렁각시>(경기 광주시 퇴촌면, 2012), <우렁각시>(전남 강진군 칠량면, 2014), <뜨물에서 나와 밥을 해준 논 고동>(경남 창원시 의창구, 2014)	

		동 각시>(경남 하동군 옥종면, 1984), <고동 각시>(전남 해남군 삼산면, 1984)	
--	--	--	--

'대계'와 '개정·증보사업'에서 조사된 우령각시 설화는 결연형(40편)이 이별형(23편)보다 많다. 결연형은 금기를 지켜 결연하는 '단순 결합형'과 금기를 파기하였지만 지혜로 이를 극복하고 다시 재회하는 '새털옷 신랑형', '아내내기 시합형'의 복합 결합형이 있다.

우령각시 설화가 금기 설화에 해당됨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언급되어 왔다.⁹ 그러나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개정·증보사업'에서 채록된 우령각시 설화에서는 단순 결합형이 증가하고 있다. 금기가 부재하거나 금기에 순응하는 단순 결합형이 증가하는 것은 신성혼에 대한 인식의 약화와 현실 중심적 세계관을 의미한다.¹⁰ 신성한 존재인 우령각시와 세속적 존재인 총각과의 결연에 대한 조건으로의 금기의 성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¹¹

'대계'와 '개정·증보사업'에서 채록된 우령각시 설화는 우령각시와 총각이 가정을 형성하여 지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단순 결연형이 증가하였다. 단순 결연형의 증가 양상은 '개정·증보사업'에서 두드러진다. 여기에는 가족 중심의 현실적 세계관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3. 여성 제보자의 구술 양상: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물 형상과 갈등을 중심으로
 '대계'와 '개정·증보사업'의 여성 제보자들은, '대계'의 경우 대부분 1900-10년대생이며, '개정·증보사업'의 경우 대부분 1920-30년대생이다.¹² 이들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도시화되

⁹ 이상백, 「한국 금기설화의 연구」, 어문학교육 제4집, 1981

장장식, 「금기의 갈등 구조」, 한국민속학 18, 1985

최재선, 「구비설화의 금기모티브에 나타난 민중의식」, 모아어문학2, 1987

이성희, 「<잉어색시> 연구」, 고향논집 28집, 2001

배세은, 『한중 금기설화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¹⁰ 유진아, 「우령각시 설화의 결연형 증가와 세속화 양상」, 동양고전연구 70집, 2018. 03, 483-485쪽.

¹¹ 유진아, 「우령각시 설화의 결연형 증가와 세속화 양상」, 동양고전연구 70집, 2018. 03, 483쪽.

¹² <우령각시 설화 목록>의 출생년도 참고. 여성 제보자의 생년은, '대계'의 경우 1900-10년대생은 모두 26

기 전에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린 여성 세대들로, 농경사회에서 외부의 경험이 제한된 가족 중심의 생활을 하였다.¹³ 이러한 여성 제보자들의 삶은 그들이 구술한 설화의 양상에서도 나타난다.

김대숙은 '대계'에서 여성제보자들이 구술한 2988편의 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하였는데, 가족 관련 설화가 가장 많았다.¹⁴ 더불어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우렁각시 설화가 대부분 여성에게서 채록되는 현상에서 '구비 여성 생애담'의 가능성도 암시하였다.¹⁵ 여성 제보자들이 여성의 입장에서 결혼 및 가정 생활을 하는 여성의 삶을 구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을 꾸리면서, 며느리로, 어머니로, 아내로 살아온 60-80대 여성의 경험과 인식이 우렁각시 설화의 인물의 형상과 욕망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래에서 관찰하도록 한다.

3.1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우선 우렁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총각의 결핍 즉 아내가 필요한 상황이 '홀어머니'의 시선에서 구술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 (1) 날에 한 사람이 엄마를 데고 엄마가 혼자 살았는데 엄마를 데고 둘이 살았는데 총각하고. 그래 산계네 하도 아들이 나이가 꼭꼭 든계네 장개를 들이야 될긴데 마음이 자꾸 있는기라. 그래 아들은 저마치나 가서 풀(밭)밭만 쫓고 있는기라. 썩어먹는 풀밭만. 그래 할매하고 둘이서 썩어가 먹고 그래 샀는데 천날만날 풀밭만 훌치묵고 사는데 "야야 니가 장개를 들어야 될긴데 우째 장개로 우째 들겠노""엄마 장개 갈 때 되면 갈게, 어매하고 둘이 이래 있다가 내가 시간이 되면 가지만 시간이 안되면 장가 가겠는교" (<밭 밭 일구는 총각과 혼인해서 산 고동각시>, 경남 함안군 대산면, 2013)

명이며, '개정·증보사업'의 경우 1920-30년대생은 모두 31명이다.

¹³ 유진아는 '대계'의 '구렁덩덩 신선비' 설화를 구술한 48명의 여성 제보자들의 거주이력과 타지 경험을 정리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평생 동일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 여성 제보자들은 태어난 마을 또는 근교 마을로 시집을 갔으며, 외지 생활을 한 경우 남편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었다. (유진아, 「구렁덩덩 신선비」에 나타나는 여성의 스키마와 상흔, 정신문화연구 143, 2016, 33-39쪽.)

¹⁴ 김대숙, 「한국구비문학대계 여성제보자 구연설화에 관한 통계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9집, 2003, 239-240쪽.

¹⁵ 김대숙, 「한국구비문학대계 여성제보자 구연설화에 관한 통계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9집, 2003, 237쪽.

- (2) 저게 노총각이 노총각이 장개를 못 가고 부모한테 굉장히 효자를 하고 효도를 하고 그러는데, 집에 오면 밥상을 차려놓고 이쁘게 차려놓고 그렇더라요. 한날은 뭐 땀시롱 그런가 가만히 봉께네 그래 예쁜 색시가 나와가지고 그 밥상을 딱 차려놓고 우물로 드가더라. 그래 봉께네 그때를 잡으면 인자 우렁이 각시가 안들어가지 싶어서 잡아가지고 살았다 그런 말이 있더라 그 정도지 뭐. (<우렁이 각시>, 경남 함양군 서하면, 2009)
- (3) 옛날에 참 효자가 살았어예. 아들하고 엄마하고 요래 둘이 사는데 아들이 조금 반축구(바보)비슷하게 이래. 이래도 엄마한테 참 효자인기라 나이가 40인데도 장가를 못가 논은 저 산골짜기 쪼만하게 한개 있는데, (중략) 그래가꼬 마 아듬어 드가지고 그 여자하고 식을 하고 이래가고 마 축구가 더 똑똑해지고 이래가 백년을 화해를 하고 부모 효자하고 그래 평상을 잘 살았는기라. (<고동 각시와 결혼한 효자>, 경남 함안군 대산면, 2013)
- (4) 옛날에 참 홀할마이가 아들을 하나 크단하이 키었는데, 골짜기라. 고래 부지런이 해야 먹고 살 낀데, 만날 먹고 놀더라여 그래, 아들이. 그래 할마이가, 어마이가 말이야, “에, 이 늬야. 그래 암 것도 먹고 살 일도 없는데 저 산에 가서 팔발인따나 쫓아가주고 아 서숙인 따나 따나 먹지, 우알라고 노노?” 그래 한날은 참 그 아들이 산골짜아 가각주고 참 노래를 청승시럽기 부르민 팔발을 쫓았어. (<우렁이 색시 덕에 임금된 사람>, 경북 선산군 고아면, 1984)

1번 자료의 경우, 아내가 없는 총각의 결핍을 홀어머니의 입장에서 구술하고 있다. 아내가 없어서 고통하는 총각보다는, 장성한 아들을 장가 보내지 못하는 홀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이 부각된다. 여성인 구술자가 장가가지 못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정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번, 3번 자료는 총각을 '효자'로 형상화하고 있다. 효자는 아내가 필요한 총각의 욕망과 연관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효자'와 좋은 아내 얻음을 연관시키고 효자가 복을 받는다고 한다. 효자는 복을 받는다는 가치관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유교적 세계관에서 영향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내가 필요한 젊은 총각의 상황을 구술하면서 굳이 '효'를 강조하는 것은 자녀들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60-80대 제보자들의 현실적 필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4번 자료에서 총각은 매우 게으른 아들로 형상화 된다. 장가를 가지 못해 고통 하는 총각이 아닌, 근면하지 못하여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으른 아들로 형상화한다. 홀어머니는 아들이 근면하게 일하도록, 남의 땅을 빌어주기도 하고 팔발이라도 일구라고 쫓아 보내기도 한다. 게으른 아들을 교화시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욕망이 강하게 나타난다.

3.2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1,2,3,4번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렁각시 서사에서 초반의 모자관계 즉 홀어머니와 장가 못가는 총각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가난하고 외로운 삶을 이겨나간다. 그러나 총각이 우렁각시를 아내로 얻어 결핍이 해소되자, 우렁각시와 총각의 홀어머니 즉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 (5) 저, 저 아들이 오데 갔다 오니께, 고동 한 마리, 고동 한 마리 잡아 놓은 거로 갖다가 물로 살살 끓이더란다. “엄마 그 물을 뭐 할라고 끓일라 카는교?” 카이께, “내, 고동, 그 고동 삶아 물라고 그렇게 한다.” “엄마는 내나, 내가 그러지 말라고. 암만 그래도 그러지 말라.” 고 카니, 고동은 안 삶기고, 물만 개이고 사, (<고동처녀와 결혼한 총각>, 경남 창원군 길곡면, 2015)
- (6) “어머니? 저 새 사람 시켜서 밥을 내 보내시지 말구 어머니께서 꼭 지금 갖다 주세요.” “염려 마라.” 이력하구 약속을 하구 갔어요. 갔는디 막상 그 셔머니가 밥을 쳐서, 가난한 집 생활이라, 누룽밥같은 게 먹구 식구, 이 그 자기가 가구 나면 그 며느리가 다 먹을 거 각구 그러닝께, 밥을 해서, “니가 좀 갖다 줘라. 오늘랑.” (중략) “난들난들 내탓이나 년들년들 네탓이나. 느이 어머니 탓이로다.” (<우렁각시>, 충남 공주군 의당면, 1983)
- (7) 그래서 같이 사는데, 밥을 해 가지고 그 전에는 늙은 어미가 내가고 했는디, 이 늙은이가 누른방을 먹으려고 꾀를 냈어. “아고 배야.”하고. “못 가것다 니가 가거라.” 하고 보냈어. (중략) 닌들닌들 네 탓이나/넨들넨들 내 탓이나/ 우리 어머니 장 탓이다. (<우렁색시(2)>, 전북 전주시 서사학동, 1980)
- (8) 이 남자가 죽어서 새가 됐드라. 새가 돼서 무릎이 가 앉아서라무니 무릎이 가 앉으니께 “내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고 느이 어무이 탓이라”고 하드랴 (<우렁각시와 죽어서 새가 된 남편>, 충남 예산군 광시면, 2013)

5,6,7,8번에서 나타나는 시어머니의 이미지는 먹을 것에 유혹되어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이미지가 강하다.

5번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 될 우렁각시를 고동으로 알고 삶아 먹으려고 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6번의 경우 시어머니는 누룽지를 먹고

싶어 며느리인 우렁각시를 외부로 노출시키고 총각은 우렁각시를 원(임금)에게 빼앗기게 된다. 시어머니는 아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신의 없는 노인으로 묘사된다. 7번의 경우 시어머니는 누룽지가 먹고 싶어 배가 아프다고 꾀를 내지만, 오히려 며느리를 원님에게 넘긴 어리석은 늙은이로 묘사된다.

6, 7, 8번의 경우는 '원혼형'에 해당한다. 원혼형에서는 우렁각시를 빼앗긴 총각이 원통함으로 죽는다. 그리고 새가 되어 임금(원)의 아내가 된 우렁각시를 찾아간다. 원혼형에서는 6, 7, 8번처럼, 이별의 원인이 시어머니에게 있음을 우렁각시 또는 총각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관찰된다. 6,7번은 우렁각시가 이 모든 것이 '네 어머니 탓'이라고 한다. 8번에서도 총각이 누룽지가 먹고 싶었던 '우리 어머니 장 탓'이라고 한다. 우렁각시의 탓도, 총각의 탓도 아닌 모든 것이 시어머니 탓인 것이다.

총각의 흠어머니는 우렁각시와의 관계에서 '시어머니'로, 총각과 우렁각시의 결연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여전히 '어머니의 법' 아래 있는 '총각'은 성숙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식된다.¹⁶ 또한 우렁각시가 어머니의 법이 지배하는 상상계 즉 '총각'에게서 벗어나, 아버지의 법이 지배하는 상징계 즉 '원(임금)'에게로 이동한 것은 사회문화적 질서에 따르는 성숙이라고 해석된다.¹⁷ 따라서 총각이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 우렁각시와 총각은 행복한 결연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어머니의 법 아래 있는 총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새털옷 신랑형'에서 이별한 총각과 우렁각시가 재결합하는 양상에서도 관찰된다. 총각은 임금의 부인이 된 우렁각시를 찾아가서 임금을 몰아내고 대신 임금이 된다. 임금이 된 총각은 우렁각시와 행복한 결합을 이루게 된다. 어머니의 지배에서 벗어난 총각이 비로소 우렁각시와 재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문제적 요소로 지적되며,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우렁각시 설화에 나타나는 시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며느리 입장에서 본 시어머니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며느리로 살아왔던 여성 구술자들의 경험에 따른 공감 양상으로 볼 수 있다.

¹⁶ 노제운, 「〈나무꾼과 선녀〉, 〈우렁각시〉 설화의 정신분석적 의미 비교연구」, 어문논집 57, 2008, 21-22쪽.

¹⁷ 노제운, 「〈나무꾼과 선녀〉, 〈우렁각시〉 설화의 정신분석적 의미 비교연구」, 어문논집 57, 2008, 28-32쪽.

3.3 아내와 남편의 관계

우렁각시 설화에는 이상적 남편에 대한 우렁각시의 욕망이 총각의 욕망보다 중시되는 자료들이 발견된다. 아내가 필요한 총각보다는 이상적인 남편을 얻고 싶어하는 우렁각시의 욕망이 부각되는 것은, 여성 제보자가 ‘아내’로서 우렁각시의 입장에 동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9) 아 그래서는 인자 쓰겠냐 헛개, 그래서 그이튿날 사흘만에 담배밭을, 담배밭을 팔라닝개 그 낚(일꾼)을 얻어갓고 판디, 새복에 나와서 밥을 헌디, (중략) 참 사흘만에 한 번 또 붙잡았다. 거시기 한 번 통(핀잔)을 보고는 또 내가 또 한 번 붙잡아야겠다고, 또 밥을 허는 디 가서 딱 보듬고는, "인제 들어가지 말고 나랑 살자."고 "내가 시간이 못 됐은개로 밥은 해 놓도 그렇게는 못 하겠다." 고 허고 물항 속으로 쑥 들어가더래. 그래서 그 나흘만에 허물을 벗고 나와서 그 내우(内外)가 잘 살았대여.

(<허물벗고 행복하게 산 우렁색시>, 전북 전주시 동완산동, 1980)

(10) "안죽꺼정 시간이 안돼서 못 산다." (중략) 처자가, "우리가 만내(만나) 산다캐도 동네 오른 들 알우고 해야 우리가 살지 힘도 없는데 그리 하겠느냐?" 하고 카이, "아이고 내가 그거는 하겠다고." 이래 허락을 해가(해서) 서로 택일을 해가 인자 그날 장개 간다 카고 동네 사람한테 모두 알우고 잔치를 해거 그 처제(처녀)랑 유자석하고 잘 살더란다.

(<우렁이 속에서 나온 처녀>, 경북 성주군 벽진면, 1979)

(11) 그 새악시가 허는 말이, 인여 당신허고 사흘만 지나문은 내가 당신허고 살 날이니께, 사흘만 지나걸랑 나하고 살자고, 그러더랴. 그래서 참, 그런다 허구서 그이는 또 나무만 해드리고, 쌀만 이웃이서 쌀 한 주먹씩 은어다가, 항상 부뚜막이다 뵈대요. 부뚜막이다 노니께는, 뵈는디, 그 쌀로 밥을 언제고 그렇게 잘 허드래요. 그래서 그 밥을 참, 먹지도 못허고 만날 여기다 놔두고, 쪼끔 떠 먹고 여기다 놔두고 했는데, 그이가 와서, 놔두은 그 아가씨가 나와서 여기다 이렇게 만져 보고 이렇게 입 대 보고, 또 그 두멍으루 쑥 들어가고, 쑥 들어가고 허는데 보니께, 그 백년*○○* 하늘에서 낸 사람일겨. 그래가지구서는 야중이 만나서 참, 부자되구 잘 살았대요. (<우렁각시와 총각>, 충남 홍성군 장곡면, 2012)

(12) 그래 또 드갔다가 또 나왔다가 요래 애로 미고 있다가 그래 그 팔밭을 다 쪼사가지고 지나올시기가 안 되서 내가 한날 저녁에는 말로 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나갈 시기가 안되서 못나가니까 팔밭을 더 쪼사라" 일쿠드랍니다, 그 처녀가. 그래서 인자 그 시 되도록 인자 *○○*가 "뉘랑 살꼬" 소리 쿠면 그냥 하는기라. 그래가 어마이하고 요 살고 있다가 그 날짜되니까 처이가 딱 나오더랍니다. 그래 그 처녀하고 총각하고 잘 살더랍니다.

(<팔 발 일구는 총각과 혼인해서 산 고동각시>, 경남 함안군 대산면, 2013)

(13) “안직 시간이 안 됐으께 몇 달만 더 참어가지구 잔치를 하구 이렇게야 살지, 무단히 이렇게 살면 공연히 죄루 몰린다구. 날 같은 사람 흠쳐왔다구 죄로 몰릴 테니께 며칠 몇 달만 더 기다리라.” 카드래여. 그래 인저 베를 다 비서 타작을 해 디리놓고 인제 잔치채비를 한단말여.(<우렁이 마누라 얻은 총각>, 충북 영동군 용사면, 1982)

(14) 뫼이나 그, 저그, 모를 심으러 가, 모를 심으러 간께로. 우렁이 항~상. 논에도 밑에서 우렁이. 우렁이 그렇게 그~닥 크게 생, 생겨 갖고, 우렁이 그렇게 크고 있더라. 그래서 인자, 그 우렁을 갖다가. 방, 방에다 갖다 뵈더니. 그것이 인도환상을 해 갖고. 자기 신랑이 됐어. (조사자: 우렁 신랑이네. 색시가 아니라.) 응. 각시가 인자 우렁, 우렁 신랑을 만나 브렸어. 돼 브렸어. 그래 갖고는 인자, 그렇게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여. (<우렁 신랑>, 전남 구례군 용방면, 2009)

10, 11, 12, 13, 14번 자료는 결연형에 해당한다. 위 자료에서 우렁각시와 총각은 금기를 파기하지 않고 금기에 순응하여 행복한 결연을 하게 된다. 우렁각시는 총각이 같이 살자고 붙잡아도 인내하여 금기를 지킨다.

10번 자료에서 우렁각시는 나홀의 시간을 기다린다. 총각은 금기의 기간 동안 낮에는 일꾼을 사서 담배밭을 일구면서 성실하게 일한다. 11, 12번 자료에서도 금기를 지키고자 하는 우렁각시의 의지가 총각의 욕망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12번 자료에서 총각은 우렁각시에게 나무와 쌀을 공급하면서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13번 역시 우렁각시는 총각에게 “내가 나갈 시기가 안되서 못나가니까 팔밭을 더 쪼사라”라고 한다. 우렁각시는 총각에게 금기의 기간 동안 생업에 힘쓰면서 근면하게 일하라고 한다. 14번 우렁각시는 총각에게 벼를 추수하고 타작하면서, 생업에 힘쓰라고 한다. 즉 총각에게 근면하고 성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14번에서 나타나는 총각의 근면함과 책임감은 가장으로서 가정 부양 능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11, 14번 자료에서 우렁각시는 총각에게 혼례식을 요구한다. 11번 자료에서 우렁각시는 ‘서로 택일을 하고 장가간다고 동네 사람한테 모두 알’리는 혼례식을 통해 공동체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한다. 또한 우렁각시는 ‘우리가 살지 힘도 없는데 그리하겠느냐?’고 물으면서, 총각에게 가정을 부양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14번 자료에서 우렁각시는 ‘날 같은 사람 흠쳐왔다고 죄로 몰릴 테니께’, 정식으로 혼례식을 치르자고 한다. 11, 14번 자료의 구술자는 신성혼을 위한 금기의 의미를 혼례식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신성한 세계와 세속적 세계의 구별보다는, 현실에서 잘 먹고 잘살

기 위한 현실 중심적 세계관이 발견된다.

15번 자료에서는 이상적 남편에 대한 여성 구술자의 욕망이 극대화되고 있다. 15번 자료의 구술자는 우렁 '각시'를 우렁 '신랑'으로 바꾸어 구술하고 있다. 아내가 필요한 총각이 아닌, 남편이 필요한 여성이 주인공이 되고 있다. 남성이 이상적 아내를 바라는 것처럼, 여성 역시 좋은 남편을 만나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금기를 지키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결연형에 나타나는 우렁각시는 순진하고 나약한 처녀가 아닌 지혜롭고 성숙한 여인의 형상이다. 우렁각시는 총각과의 낭만적 사랑에 일시적으로 끌리지 않는다. 우렁각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성실한 가장'과 '현명한 아내'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를 성취하고자 한다.

여성 제보자들 대부분이 60-80대이기 때문에 경험에서 인식된 '현명한 아내'의 역할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의 가정 부양능력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규범인 혼례식의 필요성 역시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정'의 가치를 우선시 해야 했던 여성 제보자에게 깊이 내재된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이상에서 우렁각시 설화에 나타난 구술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나타나는 여성 제보자의 인식을 관찰하였다.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개정·증보사업'에서 조사된 우렁각시 설화 대상으로, 여성 제보자가 구술하는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물 형상과 갈등 양상을 살펴해보았다.

우렁각시 설화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생활해 왔던 여성 구술자들의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서의 일생이 반영되고 있다. 아내가 필요한 총각의 욕망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본 시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드러난다. 이상적 남편을 얻고자 하는 우렁각시의 욕망은 총각의 욕망보다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며, 여기에는 현명하고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 형상화된다.

여성 제보자는 홀어머니와 우렁각시의 형상을 통해, 어머니, 며느리, 아내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구술하고 있다. 여성 제보자들은 홀어머니와 우렁각시의 욕망을 중심으로 구술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때로 총각의 욕망은 홀어머니와 우렁각시의 욕망보다 경시된다. 여성 제보자가 그들의 삶과 유사한 홀어머니와 우렁각시의 입장에

공감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우렁각시 설화에 대한 여성 제보자의 친연성을 보여준다.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개정·증보사업'에서 구술된 우렁각시 설화는 현실적 행복을 지향하는 결연형이 가장 많이 채록되고 있다. 또한 구술성을 중심으로 우렁각시 설화 자료를 해석할 때, 여성 제보자의 어머니, 며느리, 아내로 살아왔던 일생과 성숙한 여성의 현실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개정·증보사업'에서 채록된 자료는 한국구비문학의 '구술성'을 그대로 담지하고 있으며, 구비문학과 삶의 관계성과 현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 김대숙, 「한국구비문학대계 여성제보자 구연설화에 관한 통계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9집, 2003.
- 노제운, 「<나무꾼과 선녀>, <우렁각시> 설화의 정신분석적 의미 비교연구」, 어문논집 57, 2008.
- 배도식, 「우렁각시 설화의 구조와 의미」, 동남어문논집 제23집, 2007.
- 배세은, 『한중 금기설화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월터 J. 옹 지음,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4.
- 유증선, 「<조개색시> 구혼민담 소고」, 한국민속학 5, 1972.
- 유진아, 「구렁덩덩 신선비에 나타나는 여성의 스키마와 상흔」, 정신문화연구 143, 2016.
- 유진아, 「우렁각시 설화의 결연형 증가와 세속화 양상」, 동양고전연구 70집, 2018.
- 이상백, 「한국 금기설화의 연구」, 어문학교육 제4집, 1981.
- 이지영, 「한국결혼시련담 연구: <나무꾼과 선녀>와 <우렁색시>형 민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1987.
- 이성희, 「<잉어색시>연구」, 고향논집 28집, 2001.
- 장장식, 「금기의 갈등 구조」, 한국민속학 18, 1985.
-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2013-2017.
- 진은진, 『우렁색시 설화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5
-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 최인학, 『옛날이야기꾸러미2』, 집문당, 2003.
- 최재선, 「구비설화의 금기모티브에 나타난 민중의식」, 모악어문학2, 1987.
-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1985.
- 사이트 한국구비문학대계 <https://gubi.aks.ac.kr>

<부록: 우렁각시 설화 목록>

순차	제목	제보자	제보연도	제보장소	수록페이지	성별	생년	나이
1	우렁 속에서 나온 미인	최판순	1979	전북 남원군 송동면	5-1, 265-267	여	1913	67
2	고동처녀 덕에 임금된 조서방	박삼선	1979	경북 성주군 대가면	7-4, 221-222	여	1907	73
3	우렁이 속에서 나온 처녀	김경선	1979	경북 성주군 벽진면	7-5, 318-320	여	1900	80
4	달팽이(우렁이) 각시	윤민여	1980	충남 대덕군 기성면	4-2, 525-527	여	1911	70
5	우렁 색시 (1)	백금순	1980	전북 전주시 서서학동	5-2, 224	여	1929	52
6	우렁 색시 (2)	임사봉	1980	전북 전주시 서서학동	5-2, 225-226	여	1911	70
7	우렁색시(1)	박옥염	1980	전북 전주시 풍남동	5-2, 163-165	여	1906	75
8	우렁색시(2)	이순옥	1980	전북 전주시 풍남동	5-2, 165-167	여	1896	85
9	우렁색시(3)	김형순	1980	전북 전주시 풍남동	5-2, 167-170	여	1900	81
10	참빛이 된 우렁이 처녀	박성예/김현녀	1980	전북 완주군 고산면	5-2, 536-538	여/여	1895/1895	86/86
11	허물벗고 행복하게 산 우렁색시	홍태정	1980	전북 전주시 동완산동	5-2, 98-101	여	1898	83
12	우렁이 각시	김도연	1981	경남 밀양군 무안면	8-7, 541-545	여	1914	68
13	남편을 가르친 우렁이 색시	최경호	1981	전북 부안군 줄포면	5-3, 415-421	남	1917	65
14	고기가 사람된 이야기	윤추월	1981	제주 남제주군 안덕면	9-3, 695-699	여	1916	66
15	우렁색시	방경숙	1982	충남 부여군 홍산면	4-5, 775-777	여	1917	66
16	우렁색시	원대일	1982	전북 옥구군 성산면	5-4, 1096-1100	남	1917	66
17	우렁에서 나온 처녀 (1)	고아지	1982	전북 옥구군 서수면	5-4, 834-835	여	1913	70
18	우렁에서 나온 처녀 (2)	나보옥	1982	전북 옥구군 서수면	5-4, 836-839	여	1940	43
19	우렁이 마누라 얻은 총각	박임순	1982	충북 영동군 용사면	3-4, 328-334	여	1912	71
20	땅강아지 처녀와 총각	최순금	1982	경북 군위군 소보면	7-12, 169-171	여	1920	63
21	우렁각시	유조숙	1983	충남 공주군 의당면	4-6, 192-196	여	1909	75
22	총각과 달팽이	김금자	1983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2-8, 869-876	여	1934	50
23	소라 우렁과 결혼한 총각	시봉님	1984	전북 정읍군 고부면	5-5, 310	여	1907	78
24	우렁각시	오영순	1984	충남 공주군 유구면	4-6, 554-556	여	1921	64
25	우렁이 각시(1)	김금순	1984	경남 울주군 상북면	8-13, 505-506	여	1924	61

26	우렁이 각시(2)	우두남	1984	경남 울주군 상북면	8-13, 446	여	1913	72
27	우렁이 색시 덕에 임금된 사람	권옥이	1984	경북 선산군 고아면	7-16, 119-121	여	1918	67
28	우렁이 속에서 나온 미인	김영동	1984	전남 화순군 이서면	6-9, 614-615	여	1909	89
29	돌이 변한 여인과 살다 임금된 총각	윤만세	1984	경북 예천군 월포동	7-18, 502-509	남	1902	83
30	고동 각시	김금안	1984	경남 하동군 옥종면	8-14, 774-777	여	1932	53
31	고동 각시	이난자	1984	전남 해남군 삼산면	6-5, 170-171	여	1914	71
32	우렁 색시(1)	김판례	1985	전북 정읍군 북면	5-7, 191-193	여	1913	73
33	우렁색시(2)	이금녀	1985	전북 정읍군 칠보면	5-7, 420-422	여	1916	70
34	병 속에서 나온 색시	송점순	1985	전북 정읍군 정우면	5-5, 702-704	여	1915	71
35	우렁각시와 살게 된 총각	정경순	2009	경남 함양군 지곡면	8-18, 160-162	여	1928	82
36	우렁각시	이영희	2009	경기 김포시 하성면	1-10, 515-516	여	1939	71
37	우렁각시	임수연	2009	경남 함양군 안의면	8-17, 336-337	여	1938	72
38	우렁각시	이연향	2009	충남 금산군 부리면	4-7, 364-366	여	1935	75
39	우렁신랑	양정례	2009	전남 구례군 용방면	6-13, 464-465	여	1936	74
40	우렁이 각시	정숙자	2009	경남 함양군 서하면	8-16, 659-660	여	1941	69
41	우렁이 각시	이차눔	2009	경북 청송군 진보면	7-20, 218-219	여	1930	80
42	총각의 노래를 듣고 나오는 우렁각시	김경애	2009	전북 무주군 부남면	5-8, 183-184	여	1928	82
43	우렁각시	김영이	2010	전북 진안군 마령면	5-10, 153-155	여	1934	77
44	우렁각시	김순수	2011	강원 원주시 문막읍		여	1935	77
45	나무꾼 몰래 밥상을 차린 우렁각시	한연순	2012	경기 광주시 퇴촌면		여	1938	75
46	우렁각시	김점호	2012	경남 산청군 생초면		여	1930	83
47	우렁각시를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된 총각	김옥자	2012	전북 김제시 백구면		여	1937	76
48	우렁각시와 살게 된 농부	양순이	2012	전북 김제시 금구면		여	1935	78
49	우렁각시와 총각	김순분	2012	충남 홍성군 장곡면		여	1928	85
50	고동각시	김숙여	2012	경남 산청군 차황면		여	1935	78
51	우렁각시	강두남	2013	경남 함안군 칠원면		여	1931	83

52	우렁각시와 죽어서 새가 된 남자	고원석	2013	충남 예산군 대술면		여	1945	69
53	우렁각시와 죽어서 새가 된 남편	이선영	2013	충남 예산군 광시면		여	1924	90
54	고동 각시 이야기	이순이	2013	경남 함안군 법수면		여	1928	86
55	고동 각시와 결혼한 효자	손대영	2013	경남 함안군 대신면		여	1938	76
56	고동 각시와 결혼해서 산 총각	이호임	2013	경남 함안군 가야읍		여	1932	82
57	팔 발 일구는 총각과 혼인해서 산 고동각시	김점순	2013	경남 함안군 대신면		여	1931	83
58	우렁각시	장정례	2014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여	없음	없음
59	우렁각시	김순자	2014	전남 강진군 칠량면		여	1939	75
60	우렁각시와 총각	김월해	201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여	1926	89
61	뜨물에서 나와 밥을 해준 논 고동	은점오	201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여	1936	79
62	우렁각시	전인선	2015	경남 창원군 이방면		여	1941	75
63	우렁각시	노정숙	2015	경남 창원군 이방면		여	1941	75
64	우렁각시	안수선	2015	경기 하남시 춘궁동		여	1937	77
65	우렁각시	성복선	2015	경남 창원군 창녕읍		여	1937	77
66	지하국대적에게 잡혀간 우렁각시를 구한 남편(1)	심이순	2015	충남 서산시 운산면		여	1938	72
67	지하국대적에게 잡혀간 우렁각시를 구한 남편(2)	심이순	2015	충남 서산시 운산면		여	1938	72
68	고동처녀와 결혼한 총각	송용순	2015	경남 창원군 길곡면		여	1935	81
69	뱀 서방(우렁각시의 변형)	김금복	2016	카자흐스탄 잠불주 알리야		여	1956	61
70	우렁각시	이상복	2016	경기 평택시 오성면		여	1935	82
71	우렁각시	지성례	2016	대전시 중구 목달동		여	1932	85